

Supplement Table 1. Experiences of survivors during the first 2 weeks after Sewol Ferry Disaster (hyperacute phase) in the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Ansan City

구 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인터뷰 내용	
평가	사건 인식의 어려움	현재 상황이 믿기지 않음	“이 일이 저한테 진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학생 8) “그 상황이 안 믿겨져서요. 병원에선 현실감도 없고 멍했거든요”(학생 9) “그냥 시키니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었어요”(학생 17) “몇백 개 되는 문항은 누가 만들었는지 원망스러웠어요”(학생 4) “설문지 양이 너무 많아서 하기 힘들었어요”(학생 6) “설문지 체크하는 건 그냥 빨리 끝내야지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학생 19) “전 설문조사할 때 안 좋게 체크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부를까 봐요”(학생 20) “결과는 안 알려준 건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학생 3)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 적은 없어요”(학생 21)	
		설문 실시에 대한 비자발성	평가 실시에 대한 의문 설문지 분량이 많았음	“타임 별로 항상 치료 프로그램 있으면 할 사람 오라고 했었는데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됐어요. 친구들 보면 프로그램하러 올라가서 잤어요”(학생 1) “병실에 있었는데, 프로그램하라고 하니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 애들도 있었어요. 그 마음도 이해돼요”(학생 18) “전 거의 침대에 누워서 버티고 참여 안 했어요”(학생 5) “참여를 거의 안 했어요. 참여 안 할 때도 딱히 뭔가를 한 건 없었는데, 몸만 힘들어서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학생 11) “상담받을 친구는 받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대로 뒀으면 하는 느낌이에요”(학생 15) “엄청 예민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밥 먹는 것도 이때는 싫었어요. 그때는 누가 웃는 것만 봐도 싫었어요”(학생 18)
		설문지를 주의 깊게 체크하지 못함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요”(학생 3) “오라고 하면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아요”(학생 15)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흐릿한 기억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서 거부했던 것 같아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담받는 게 힘들었어요”(학생 12) “상담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담이 끝나지?’만 생각했어요’.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할까?’ 이런 생각했었어요”(학생 1) “집단 상담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꺼리지고 불편했어요”(학생 9) “여러 명이 모여서 사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였어요. 그 시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학생 17) “왜 자꾸 그걸 물어보는지 도움 안 됐어요. 물어보는 자체를 잘 모르겠으니까요”(학생 4) “병원에서는 말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었고요, 그땐 다 싫었어요”(학생 12)
개입	프로그램 참여 거부	하기 싫은데 해야 함	“사람들이 환자치럼 보는 것 같이 느낌 “맞지 않아도 되는 링거를 맞았음 개인 상담은 괜찮았음 프로그램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좋았음 병원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음 (학생 6) “지금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걸요. 터치하는 사람 없고, 친구들이 먹을 거 사 오고, 친구들 보고, 가족들 보면서 그때가 더 좋았어요”(학생 19)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아이클레이 같은 거로 만들기 했었는데, 그건 재밌었어요”(학생 9) “초반에는 미술치료했었어요. 만다라 색칠하는 거요”(학생 16) “마술 쇼 봤어요. 다들 모여서 참여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학생 12) “이상한, 신기한 마술 이런 것 보고요. 전 마술이 재밌었어요”(학생 18) “뭔가 활동이 많긴 했어요. 만들기 같은 것도 있었고, 누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기도 했고요”(학생 11) “애들끼리 안정 취하라고 프로그램들을 만드셨어요. 보드게임들도 있었어요”(학생 20) “프로그램은 딱히 생각은 안 나요. 재미있었던 건 없었어요”(학생 7)
		그냥 놔두기를 바람		“혼자 하는 상담했었어요. 말하면서 우니까요. 그만큼 풀려지고요”(학생 19) “오히려 프로그램 끝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한 시간이 더 좋았어요”(학생 1) “쉬는 휴게실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학생 10) “병원에 있는 게 좋긴 좋았어요. 병원에 있는 데 엄마 아빠 아는 사람들 오시면 용돈도 많이 주시고요. 저녁에 뭐 시켜 먹고 후배들 오면 뭐 사주고 그랬어요”(학생 6) “지금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걸요. 터치하는 사람 없고, 친구들이 먹을 거 사 오고, 친구들 보고, 가족들 보면서 그때가 더 좋았어요”(학생 19)
		비자발적, 비의식적 참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사람들이 저를 환자치럼 보는 것 같으니까 저도 제가 그 보이는 것 같았고요”(학생 1) “처음에 환자 취급하나 싶어서 거부감이 들었어요”(학생 17) “맞지 않아도 되는 링거를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엄청 싫어했고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어요”(학생 19) “1:1로 개별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현재 상황도 얘기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얘기도 하고요”(학생 14) “혼자 하는 상담했었어요. 말하면서 우니까요. 그만큼 풀려지고요”(학생 19) “오히려 프로그램 끝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한 시간이 더 좋았어요”(학생 1) “쉬는 휴게실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학생 10) “병원에 있는 게 좋긴 좋았어요. 병원에 있는 데 엄마 아빠 아는 사람들 오시면 용돈도 많이 주시고요. 저녁에 뭐 시켜 먹고 후배들 오면 뭐 사주고 그랬어요”(학생 6) “지금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걸요. 터치하는 사람 없고, 친구들이 먹을 거 사 오고, 친구들 보고, 가족들 보면서 그때가 더 좋았어요”(학생 19)
환자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의식	사람들이 환자치럼 보는 것 같이 느낌	맞지 않아도 되는 링거를 맞았음		
		개인 상담이 도움 안 됨		
		집단 상담은 싫었음		
		부족했던 마음의 준비 시간		
도움 되었던 긍정적인 면	프로그램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좋았음	병원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음		
		프로그램 활동 경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함		
		마술 공연 봄		
허락되지 않은 외출, 면회	병원에서 외출, 면회가 안되어 답답함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음		
		프로그램이 재미없었음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해 납득이 안됨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해서 화가 났고요”(학생 4)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외출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전 장례식장에 갔을 것 같아요. 장례식은 참석하는 게 좋았겠다고 생각해요”(학생 18)		

Supplement Table 2. Experiences of survivors during the 3 week to 6 week (acute/subacute phase) in an training institute in Ansan City

구 분	장 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인터뷰 내용
평가	연수원	심리검사 미 실시	검사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함	“검사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학생 1)
개입	연수원	‘함께’라는 시너지 효과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았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게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요”(학생 8) “일단은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랑 계속 있으니까 그게 괜찮았어요”(학생 17)
			또래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함	“선생님들이 짜 준 프로그램이나 상담보다는 그렇게 노는 게 더 좋았어요”(학생 9) “저희가 직접 런닝맨 게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했는데 재밌었어요”(학생 19)
		집단의 동질성	같은 한 집단이라는 게 느껴짐	“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처음 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면서 거리감이 좁혀졌어요. 같은 한 집단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다독여주고 했던 게 좋았어요”(학생 1)
		집단 놀이 활동의 긍정성	모두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됨 놀면서 하나가 활동 같지 않았음	“본격적으로 저희가 치료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아픈 애들이었구나’.를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학생 19) “집단으로 놀면서 하나가 활동이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했어요”(학생 2) “중간중간에 전체가 같이하는 활동하는 건 운동회 같아서 재밌었어요”(학생 19)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재 경험을 원함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함 간식이 마음에 듦 상담 선생님이 좋았음	“연수원 기억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했고요, 또 가고 싶어요. 그때 프로그램 그대로 또 했으면 좋겠어요”(학생 11) “메모지에 친구 장점 적어서 붙여놓고 하는 것도 재밌고 좋았어요. 밝은 내용에 대한 활동이 더 마음 편했어요”(학생 8) “간식 주면 엄청 좋아해요. 중요한 건 먹을 거 같아요”(학생 2) “상담 선생님이 계속 안 바뀌고 계셨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엄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배려해주시고, 생각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학생 1) “선생님들은 진심을 담아서 해줬다고 해야 될까 그랬어요”(학생 8)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됨 듣는 등 마는 등 함 왜 한 건지 모름	“처음에는 여러 활동들을 갑자기 해본 거라 적응 안 됐었어요”(학생 4)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왜 거기서 살아야 되나 싶어서요”(학생 15) “듣는 등 마는 등 했어요. 나쁜 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하단 생각은 안 들고요”(학생 3) “그걸 왜 한 건지 몰랐었어요. 지금 감정이 어떤지 딱히 생각 안 하는데 얘기하라니까 난감했어요”(학생 5)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	갑자기 하려니 힘들었음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함 프로그램이 많았음	“다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싫어서요. 그걸 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안 한다고 말했어요”(학생 9)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있다가 하려고 보니까 단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풀어져 있다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힘들었어요”(학생 14) “그때는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만난 게 아니라 갑자기 모르는 친구들끼리 만난 거라 트러블도 많이 생겼어요”(학생 20) “조를 짜서 몇 가지 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학교 가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건물로 이동했어요”(학생 21)
			미술치료를 받음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들 오셔서 학교처럼 수업도 받았고요”(학생 10) “친구들이랑 찰흙 만들고 그랬어요. 그건 재미있었어요. 클레이 밖에 생각이 안 나요”(학생 6) “만들거나 그리는 거 했어요”(학생 7)
		프로그램의 부정적 인식	연극 활동을 경험함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	“마지막에 각 반끼리 연극했거든요. 연기는 못했어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누워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나고 또 하고도 싫어요”(학생 4) “멘토링은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이랑 지금까지 연락해요”(학생 7)
			너무 치료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함	“대학생들 선생님들이 저희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요. 그런 활동했던 게 더 기억에 남아요”(학생 9) “치료받는 기분이 너무 심했어요”(학생 7) “너희는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환자 취급을 하니까 그랬어요”(학생 14)
		일상으로의 복귀 희망, 연습	집단 상담이 싫었음	“집단 내에서 얘기하게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요”(학생 7)
			프로그램이 지루했음	“단체로 하는 회복 프로그램 있었어요. 전 되게 하기 싫었어요”(학생 14) “프로그램은 싫다기보다 지루한 느낌이었어요”(학생 1) “그저 귀찮았어요”(학생 15)
		대학 병원	일정이 너무 빡빡했음	“일정은 학교 수업처럼 빡빡했어요. 쉬는 시간도 없었거든요”(학생 1) “일주일 동안 심리 검사, 치료라고 해야 되나. 짜여있는 스케줄대로 행동했어요”(학생 19)
			흥미 있는 활동을 원했음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음	“다 좋아할 만한 공통된 거 해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축구공 하나만 던져줘도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요. 앉아서만 하는 건 별로였고요”(학생 14) “저희는 외부랑 단절된 거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어요”(학생 9) “그때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학생 17)
		내원하지 않음	일반 학교 수업을 받음	“연수원에 학교 선생님들 와서 수업도 들었어요”(학생 5)
			외출해서 통원치료 받음	“연수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일정 잡아줘서 통원치료 했었거든요. 거기 정신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대부분 애들 다 그랬어요”(학생 5) “연수원 안에서도 대학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학생 11)
			안산 소재 대학병원에는 안 갔음	“병원에는 안 갔었어요. 상담 자체를 싫어하고 너무 귀찮아서요”(학생 6) “대학병원에 통원 치료하러 가진 않았어요”(학생 9)

Supplement Table 3. Experiences of survivors from the 7 week to the end of the eleventh-grade (subacute/chronic phase), returning to school

구 분	장 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인터뷰 내용	
평가	교내 마음건강센터	설문 실시에 대한 익숙함	‘매일 하는 거네’라고 느낌	“병원에 입원했을 때랑 비슷한 설문지였고, 별다른 건 없어서 매일 하는 느낌이었어요”(학생 10)	
			설문지를 솔직하게 실시함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진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하긴 했죠. 그래도 성실히 했어요”(학생 1)	
			설문 문항들이 불편하진 않았음	“설문지 보면서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학생 5)	
		설문지 실시의 불편함	여전히 설문지는 하기 귀찮음	“계속 봤던 질문들이라 익숙해서 그 일이 떠오르게 하지는 않았어요”(학생 7)	
			다양한 평가 실시	여러 검사를 한 것으로 기억함	“귀찮았던 것 밖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학생 2)
					“집중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똑같다 보니 건성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학생 19)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평가 결과가 궁금함	평가 결과가 기억나지 않음	“스트레스 검사했었어요”(학생 10)
				평가 결과가 기억나지 않음	“호흡 훈련, 교감 지수, 부교감 지수 파악하는 검사했어요”(학생 16)
				평가 결과가 기억나지 않음	“그림검사 같은 거 했었어요”(학생 19)
				평가 결과가 기억나지 않음	“결과가 어떤지 받아보고 싶었어요”(학생 3)
대학 병원	주기적 평가 시행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였음	“검사 결과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결과 중이는 받았던 것 같아요”(학생 17)		
		평가 결과에 관한 기억	“갈 때마다 했어요. 질문도 똑같고 양도 같았어요.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학생 18)		
		평가 결과에 관한 기억	“결과는 들은 기억이 잘 없어요”(학생 7)		
		평가 결과에 관한 기억	“검사 결과 듣고도 나를 알아봤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했나 보다 싶었어요. 했으니까 알려준다고 생각했어요”(학생 19)		
개입	교내 마음건강센터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	상담하면서 힘든 거 다 얘기함	“학교 들어가서 더 힘들었어요. 전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얘기하고 싶은 것들 다 얘기하면서 도움 됐어요”(학생 1)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짐	“의사 대 환자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학교라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학생 7)	
			상담 선생님을 편하게 느낌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어요. 보듬어 준다고 할까요”(학생 12)	
		주기적인 상담 일정	선생님이 부르면 상담하러 감	“선생님이랑 얘기할 땐 뭐가 마음이 편해져요”(학생 7)	
			상담 선생님이 애들마다 정해져 있음	“센터 선생님이 전 부르면 가는 편이에요”(학생 5)	
			수업 시간에 상담하러 갈 수 있음	“가서 얘기하고 상담받고 검사하고 그랬어요”(학생 9)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스스로 필요할 때 찾아가서 상담받음	상담 선생님이 애들마다 정해져 있음	“상담 선생님이 정해져 있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몇 교시에 선생님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학생 16)
				상담 선생님이 애들마다 정해져 있음	“수업 중간에 갈 수도 있거든요. 수업보단 가벼운 느낌이었죠”(학생 5)
				상담 선생님이 애들마다 정해져 있음	“학교에서는 문자로 ‘몇 시에 오세요’ 하면 갔어요”(학생 3)
				상담 선생님이 애들마다 정해져 있음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되면 제가 찾아가서 상담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학생 8)
대학 병원	부담 없는 상담	상담 갖지 않게 자유로웠음	“저희한테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프로그램 진행해주셔서 구속받는 느낌 안 들고 제한 없어서 좋았어요”(학생 2)		
		1:1로 상담하는 게 좋았음	“전 누구랑 진지한 얘기 할 때는 여러 명 보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았어요”(학생 7)		
		상담실이 가까워서 좋았음	“상담은 주로 1:1로 스쿨닥터 선생님이랑 했어요”(학생 8)		
		일상 얘기 나누는 게 좋았음	“얘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었는데 학교 스쿨닥터 선생님이랑 상담했었어요”(학생 8)		
		증상에 대해 설명 들음	“학교 안에 있으니까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학생 7)		
		만들기 활동에 참여함	“그냥 일상생활 이야기 나누고 그랬어요”(학생 9)		
		강아지가 도움 되었음	“제가 말을 꺼낼 수 있게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았어요”(학생 4)		
		상담 시간은 5~10분 내외임	““그 시기에는 다 이릴 수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해주시고, 일반 사람들과 같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학생 8)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병원 갈 수 있었음	“저울에는 트리 만들고, 꽃꽂이도 해서 애들 하나씩 나눠줬어요”(학생 4)		
		기타	프로그램 참여	상담 시간을 5~10분 내외임	“수업 쉬는 시간에 강아지 보러 갔는데요. 센터에 동물이 있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학생 16)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병원 갈 수 있었음	“상담 시간은 5~10분 정도로 얼마 안 걸렸어요. 시간은 부담 없었고, 학교 끝나고 갔었어요”(학생 3)				
지원 끊기기 전까지는 다님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병원 가고 그랬고요”(학생 17)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하셨음	“대학병원 가는 건 출석도 되니까요”(학생 6)				
얘기를 들어주신 것이 도움 됨	“병원은 꾸준히 갔었는데. 지원 끝나서 안 갔던 것 같아요”(학생 6)				
상담에 대한 아쉬움	“병원은 지원 끊기고 나서는 안 갔죠”(학생 13)				
별로 느껴진 소득은 없었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그런 것만 했어요. 그냥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학생 5)				
약물 처방을 위한 진료	“대학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라 해서 갔어요”(학생 3)				
별로 느껴진 소득은 없었음	“사고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도움이 됐어요”(학생 4)				
약물 처방을 위한 진료	“면담하는 게 부담은 없었어요”(학생 9)				
기타	프로그램 참여	상담 선생님이 따라 다르게 느낌	“선생님 한 분이 꾸준히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전 선생님이 따라서 다르게 느꼈어요”(학생 8)		
		별로 느껴진 소득은 없었음	“병원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셨어요”(학생 17)		
		약물 처방을 위한 진료	“일상 물어보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요. 도움받을까 없었어요. 별로 소득은 없었어요”(학생 3)		
		병원에는 몇 번 정도만 내원함	“도움받은 건 별로 없었고요”(학생 6)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상담하고 약 받아왔어요. 약은 엄마가 주니까 ‘약이다’ 하고 먹긴 했어요”(학생 21)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저한테는 ‘약을 받으러 가야지’. 하는 마음이었지, ‘상담하러 가야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학생 12)		
기타	프로그램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대학병원은 잠이 안 와서 두세 번 갔던 것 같아요”(학생 3)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병원은 초반에 다니다가 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필요할 때 가겠다고 했어요”(학생 7)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학교 들어와서도 멘토링은 조금 더 했었어요”(학생 5)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다른 대학교에서 공부로 멘토링 하러 오신 분도 계셨고, 취미 활동으로 오신 분도 있었어요”(학생 10)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다 같이 연극배우하고 대본도 있고, 직접 무대에서 연출해보고 조명도 해보고 그랬어요”(학생 10)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처음에는 애들이 좀 안 내켜 하고 시킨 등 했었는데, 마지막에 동화 각색해서 직접 스토리를 써서 했거든요. 그땐 다 웃으면서 참여했어요”(학생 16)		
기타	프로그램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프로그램 짜서 방학 때 놀러 갔다 오는 거 하거나 학교 와서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한 적 있어요”(학생 5)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학교로 와서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어요”(학생 11)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공부는 할 만했어요”(학생 15)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죽은 친구들 반에 가서 편지 써서 교탁 앞에서 태운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했던 거예요. 싫은 기억은 아니었어요”(학생 14)		
기타	프로그램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죽은 친구들 반에 가서 편지 써서 교탁 앞에서 태운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했던 거예요. 싫은 기억은 아니었어요”(학생 14)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존치 교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갔거든요. 전 그게 좋았어요. 자주 갈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 생각도 하고 친구들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학생 18)		

Supplement Table 4. Experiences of survivors during the Twelfth-grade year (chronic phase), continuing intervention programs in and out of school

구 분	장 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인터뷰 내용	
평가	교내 마음건강센터	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	2학년 때와 비슷함	“2학년 때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계속 학교 다니면서 설문지는 했어요.”(학생 19)	
			처음보다는 낫다고 생각함	“매번 하던 거니까 처음보다는 낫다 싶었어요”(학생 1) “문항 수가 작아서 할 만했어요”(학생 21) “스트레스 검사도 해주셨어요”(학생 18)	
개입	대학 병원	평가 시행의 어려움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함	“설문지를 할 때 좋고 나쁜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할 땐 힘들었어요”(학생 3)	
			평가 시행의 어려움	“대학병원에서도 설문지 해서 받아 갔어요”(학생 2)	
	교내 마음건강센터	상담 유지	설문 검사를 시행함	“선생님 만나는 애들은 똑같이 만나서 얘기했어요”(학생 10) “학교에 있을 때 스쿨닥터 선생님이랑 주기적으로 만났어요”(학생 11) “스쿨닥터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있어 주신 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제가 갈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학생 1)	
			상담 유지	“2학년 때와 거의 비슷함”	
		상담 횟수의 감소	2학년 때보다는 가는 횟수가 줄어들	“가는 횟수만 좀 줄고요. 가끔 가서 똑같이 하고 그랬어요”(학생 5) “2학년 땐 뭘가 많았던 것 같은데, 3학년 때는 좀 덜 했었죠”(학생 9)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건 거의 없었고요. 각 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담받는 정도였어요”(학생 1)	
			필요한 정보 및 활동 제공	“스쿨닥터 선생님이 약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어요. 약을 복용하는 애들도 있어서요”(학생 19) “대학교랑 과 선택하는 진로에 대해 얘기 많이 했어요. 고민도 같이하고요”(학생 11) “꽃다발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학생 12) “상담 자체가 싫어니까 선생님이 부르면 싫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죠”(학생 1) “향초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괜찮았어요”(학생 8) “방향제 만들기도 좋았어요”(학생 12) “화장해주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서로 친구들이랑 화장해주기도 했어요”(학생 12) “힘들거나 대학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 때는, 온마음센터에서 대학교 자소서 쓸 때 도움 됐어요”(학생 19) “병원은 계속 다녔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집중을 잘 못했었거든요”(학생 6) “대학병원은 3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수업 마지막 시간에 병원 가는 편이었어요”(학생 15)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좋았어요. 유쾌하시고 센스도 좋으시고, 이미지가 포근했어요”(학생 2)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 불안이 있어서 병원에 꾸준히 갔었는데 선생님을 오래 뵈게 돼서 편했어요. 병원 선생님이랑 마음 열려서 잘 다녔어요”(학생 12)	
		상담 거부	상담 자체를 싫어한 친구들이 있음	“상담 자체가 싫어니까 선생님이 부르면 싫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죠”(학생 1)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향초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괜찮았어요”(학생 8) “방향제 만들기도 좋았어요”(학생 12) “화장해주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서로 친구들이랑 화장해주기도 했어요”(학생 12) “힘들거나 대학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 때는, 온마음센터에서 대학교 자소서 쓸 때 도움 됐어요”(학생 19) “병원은 계속 다녔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집중을 잘 못했었거든요”(학생 6) “대학병원은 3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수업 마지막 시간에 병원 가는 편이었어요”(학생 15)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좋았어요. 유쾌하시고 센스도 좋으시고, 이미지가 포근했어요”(학생 2)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 불안이 있어서 병원에 꾸준히 갔었는데 선생님을 오래 뵈게 돼서 편했어요. 병원 선생님이랑 마음 열려서 잘 다녔어요”(학생 12)	
		온마음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향초 만들기를 함	“향초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괜찮았어요”(학생 8) “방향제 만들기도 좋았어요”(학생 12) “화장해주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서로 친구들이랑 화장해주기도 했어요”(학생 12) “힘들거나 대학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 때는, 온마음센터에서 대학교 자소서 쓸 때 도움 됐어요”(학생 19) “병원은 계속 다녔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집중을 잘 못했었거든요”(학생 6) “대학병원은 3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수업 마지막 시간에 병원 가는 편이었어요”(학생 15)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좋았어요. 유쾌하시고 센스도 좋으시고, 이미지가 포근했어요”(학생 2)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 불안이 있어서 병원에 꾸준히 갔었는데 선생님을 오래 뵈게 돼서 편했어요. 병원 선생님이랑 마음 열려서 잘 다녔어요”(학생 12)
				메이크업 알려주는 교육이 있었음	“메이크업 알려주는 교육이 있었음”
	대학 병원	규칙적인 통원 치료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을 받음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을 받음”	
			병원엔 꾸준히 다님	“병원엔 꾸준히 다님”	
기타		치료 종결	치료를 종결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들음	“3학년 말에는 안 와도 된다고 하시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안 갔어요”(학생 4) “병원에서 여러 치료들을 받아보도록 권유하신 적도 있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하기 싫었어요”(학생 18) “병원은 거의 안 갔고요. 따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학생 10) “대학병원은 3학년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지원이 끊겨서 안 갔어요”(학생 19)	
			심층 치료 거부	“심층 치료를 권유받은 적 있으나 거절함”	
		통원치료하지 않음	병원은 거의 간 적 없음	“병원은 거의 안 갔고요. 따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학생 10) “대학병원은 3학년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지원이 끊겨서 안 갔어요”(학생 19)	
			지원이 끊겨서 가지 않음	“대학병원은 3학년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지원이 끊겨서 안 갔어요”(학생 19)	
		학업 수행의 어려움	공부하려고 마음먹어도 잘 되지 않았음	“대학을 가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잘 안됐어요. 사건 전에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마음잡기가 안 되더라고요”(학생 1) “사고 1주기 되기 일주일 전부터 엄청 우울했었어요.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 행사 때 엄청 울었어요. 그때는 치료가 필요했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학생 9) “저희의 1주기 목표가 학생들끼리만 하는 거였거든요. 선생님들 간섭 없이 저희끼리만 하는 게 목표였고. 순수하게 추모를 하자는 의도였어요”(학생 20) “진학에 대해서는 과를 어디 가야 할지 고민이 많긴 했어요”(학생 20) “입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는 않았지만 준비 많이 했어요”(학생 10) “대학교에서 입시 감독관분들 오셔서 면접 대비를 위해 질문하는 것도 있었어요”(학생 10) “진로 결정을 잘 못했을 시기에 컨설팅 같은 걸 받았어요”(학생 10) “진로 상담이나 유명한 분들 오셔서 강연 같은 건 좋았어요”(학생 15) “특례 입학이어서 많이 싸웠었어요. 저는 적당히 잘 지원해서 다행히 대학교 잘 입학했어요”(학생 18) “사람들한테 받은 게 충분히 많아서 더 필요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너무 많아서 생각이 다 안 나요”(학생 4)	
			사건 후의 1주기	“사건 후 1주기 때 힘들었음”	
		대학고 입시를 위한 노력	입시를 준비함	“입시를 준비함”	
			모의 면접 연습함	“모의 면접 연습함”	
			진로 강의 들음	진로 강의 들음	“진로 강의를 잘 못했을 시기에 컨설팅 같은 걸 받았어요”(학생 10) “진로 상담이나 유명한 분들 오셔서 강연 같은 건 좋았어요”(학생 15) “특례 입학이어서 많이 싸웠었어요. 저는 적당히 잘 지원해서 다행히 대학교 잘 입학했어요”(학생 18) “사람들한테 받은 게 충분히 많아서 더 필요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너무 많아서 생각이 다 안 나요”(학생 4)
				특례 입학에 대한 다짐	“특례 입학이어서 많이 싸웠었어요. 저는 적당히 잘 지원해서 다행히 대학교 잘 입학했어요”(학생 18)
		도움에 대한 감사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심	“사람들한테 받은 게 충분히 많아서 더 필요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너무 많아서 생각이 다 안 나요”(학생 4)	

Supplement Table 5. Experiences of survivors after university entrance (10 months starting from the 22nd post-disaster month)

구 분	장 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인터뷰 내용	
평가	마음건강센터 (마음토닥 의원)	지속적인 평가 실시	한 번 정도 한 적 있음 6개월에 한 번씩 평가 함	“대학교 1학년 때 검사 한 번 했어요”(학생 3) “6개월에 한 번씩 검사지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없어요”(학생 8) “꾸준히 하고 있어요”(학생 16)	
개입	온마음센터	평가의 자발성 증가	심리 검사 있으면 받으려고 함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심리 검사 있으면 받으려고 해요”(학생 2)	
		평가 미 실시	평가하는 건 없음	“온마음센터는 검사하는 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뭐 하고 지내는지 얘기하는 거예요”(학생 5)	
	마음건강센터 (마음토닥 의원)	꾸준한 상담 경험	스쿨닥터 선생님이랑 종종 만남	“스쿨닥터 선생님이랑은 대학교 1학기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여름 방학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2학기 되니까 바빠서 잘 못 뵈었어요”(학생 1) “마음토닥 의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신경받았는데 재검받으라고 해서요. 병원을 좀 더 다니고 오라는 데요. 불안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요”(학생 15)	
			학기 중에는 가끔씩 내원함	“학기 중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왔어요. 제가 바빠서 못 와서 약도 엄마가 와서 받아 가기도 했어요. 과제가 엄청 많아서 정말 바빠요”(학생 12)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것 같음	“여기는 구세군이라고 거기서 의료비 지원을 해줘요. 영수증을 찍어서 주면 구세군에서 해주세요. 국가에서 해주는 건 지원 끊겼어요”(학생 12)	
	온마음센터	증상에 대한 염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증상이 심해짐	“제가 좀 이상한 케이스 같아요. 전 대학교 입학하고부터 더욱 힘들다고 느껴져요”(학생 11) “대학교 들어가서 불안한 게 심해진 것 같아요”(학생 15)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	기차 여행을 하였음 온천 여행 다녀옴	“기차 여행 갔었어요. 어딘지는 기억 안 나고요. 부모님도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고요”(학생 5) “저번에 다 같이 온천 갔었거든요”(학생 4) “온천 가는 프로그램은 참여해서 갔었어요. 그때 가서 선생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조금 친해졌어요”(학생 7)
			상담자와의 만남	부산으로 배낭 여행 다녀옴 봉사하는 여행 프로그램 참여	“10명 정도 모여서 배낭여행 가는 거 다녀왔어요. 국내 여행으로 부산에 갔었던 거요. 힘들긴 했는데 재밌었어요”(학생 8) “방학 때 봉사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 참여하고서, 그 후로도 괜찮은 것 같으면 갔었어요”(학생 1)
				센터 선생님이랑 만나서 밥 먹고 편하게 얘기함	“선생님을 만나긴 했는데 상담이라기보다 밥 먹고 편하게 얘기하듯이 했어요. 개인 상담 식으로 센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근처에 카페에 가기도 하고요”(학생 1) “온마음센터 선생님이랑은 대학교 가서 잘 지내는지 근황 나누는 정도로 뵈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요”(학생 8)
	구세군	센터와는 교류하지 않음	졸업 이후 연락 온 선생님이랑 만남	“온마음센터 선생님은 연락해서 찾아오시면 만나는 정도였어요”(학생 9) “졸업하고서 온마음센터에서 연락 온 선생님이데요. 저희 집 근처까지 오셔서 커피 마시고 그랬어요. 죄송한 마음에 이젠 제가 찾아가기도 해요”(학생 2)	
이곳 아니면 갈 데가 없었음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져서 멘탈 무너졌을 때 가죠.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원래 만나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학생 2)		
튜터링 프로그램		센터와는 교류하지 않음	가끔 센터에서 연락이 왔으나 가지 않음	“제가 연락도 안 받고요. 제가 하는 게 많아서 연락을 안 받다 보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는데요”(학생 7) “매번 문자가 오는데 그러면 대답만 해요. 따로 만나거나 그렇진 않고요”(학생 15)	
		튜터링 프로그램	대학생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튜터링 하는데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만나서 공부하고 같이 목표 정해서 공동 프로젝트 하는 건데요.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좋았어요”(학생 9) “튜터링 괜찮았어요. 과목 중에 하나를 부족한 걸 정해서 공부하는 거예요”(학생 16)	
		공동 참여 활동	맛 집 탐방을 함 공동 프로젝트를 하였음	“구세군이라고, 맛집 탐방하고 학교 내에서 공부도 하고 놀러 갔던 활동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학생 4) “공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 안에서 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도구를 사서 애니메이션 만들었어요”(학생 16)	
		향후 참여 여부	다음 시기에는 신청하지 않음 예정임	“공동체 활동도 방학 때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 타기를 한강에서 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등산도 가봤어요”(학생 19) “여행은 가족끼리 갔다 온 적 있는데요. 워터파크 같은데도 가고 좋았어요”(학생 12) “가족 여행도 다녀왔어요. 전 부산으로 갔다 왔는데 아주 좋았어요”(학생 20)	
기타	직업 체험을 하였음	직업 체험을 하였음	“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영화관이나 보건소, 의료, 카페 등 자기 과에 맞는 장소를 연결해서 체험이나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었어요”(학생 12)		
		향후 참여 여부	다음 시기에는 신청하지 않음 예정임	“저는 튜터링 안 하고 싶었고, 그때는 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학생 7) “튜터링 신청 안 했어요. 필요 없는 것 같아서요”(학생 8)	
	꾸준한 통원 치료	튜터링은 꾸준히 할 계획임	“계속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잘 맞춰 주시고 좋았어요”(학생 18) “전 올해도 다시 하려고요. 실력은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1:1 과외니까요”(학생 20)		
		정신과 약 복용 치료비에 대한 부담 책임감, 독립심	정말 힘들 때 약을 복용함 대학병원은 비용이 많이 발생함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느낌	“대학병원은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안 끊기고 계속 다녀오고 있거든요. 병원 다니면서 힘들거나 불편한 건 없어요”(학생 16) “지금은 약 안 먹어서 정말 힘들 때만 약 남은 거 조금씩 먹고 그런 편이에요”(학생 18) “병원은 지원이 끊겨서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갔어요. 진료량 약 받는 것도 비싸서 돈이 안 되어서 못 갔어요”(학생 12) “고등학교 때는 ‘우리끼리만~’ 이런 게 있었는데, 졸업하고서 헤어지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게 생겼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겠죠”(학생 12)	
대학 생활 경험	입학 후 적응의 어려움	그동안 많은 걸 지원받음	“저희가 계속 지원 같은 걸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애들이 지원을 너무 받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익숙해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학생 20)		
		입학 후 적응의 어려움	처음 입학했을 때 힘들었음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어디냐고 물어봐서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지?’ 난감한 정도예요”(학생 3) “졸업하고서 친구들이 다 흩어져서 불편했어요. 예상대로 좀 힘들었어요”(학생 11)	
		대학 생활에 익숙해짐	처음에 걱정했으나 지금은 좋음	“전 거의 대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박혀있고, 요즘엔 몸이 피곤해서 잠이 많아요. 대학교는 2학기 돼서는 거의 안 나갔어요. 아예 안 가서 애들이 자퇴한 줄 알아요”(학생 2) “제가 학사경고 대상자예요. 시험을 안 본 것도 있고, 출석이 모자랐던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좀 걱정이예요. 학교 1년 휴학하려고 생각 중이에요”(학생 11) “대학교 2학기에는 학사경고를 받았어요”(학생 14)	
	대학 생활에 익숙해짐	단원고 출신인 건 조심스러움	“제가 단원고 출신인 건 친한 친구 한두 명밖에 몰라요. 그거에 대해선 아직 조심스러워요. 학교 수업 중에 세월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니까요. 조심스럽고 신경 쓰일 때 있어요”(학생 20)		
		대학 생활에 익숙해짐	처음에 걱정했으나 지금은 좋음	“대학교 적응하는 거는 많이 걱정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1년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학교 활동도 재밌었고요”(학생 14) “대학교 적응하는 건 처음에 힘들까 봐 오리엔테이션도 안 갔었어요. 걱정 많이 했던 거랑 달리 친구도 잘 사귀고요. 단원고 나왔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해줄까 봐 걱정했는데, 이해 잘 해줘서 잘 지내고 있어요”(학생 18) “그냥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지나갔어요”(학생 17)	
대학 생활 경험	그냥 1년이 빠르게 지나갔음	한 학기 지나니까 적응이 됨 과제가 많아서 바쁨 함께 무리 지어 다님	“대학교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2학기 돼서는 적응을 하게 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학생 13) “밤샘이 많고 과제가 많아요. 과제 하는 것만 해도 일주일이 꼭 차거든요. 그렇게 해도 못 할 때도 있어요”(학생 13) “학교 끝나면 새로 사귀 친구들이랑 매일 무리 지어 놀러 다녔어요. 대학 생활이 재미있어요.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규모도 크고, 책도 멋있더라고요”(학생 21)		